

## 광주시, 온가족이 즐기는 추석 문화바캉스

디자인비엔날레·박물관·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곳곳 문화 향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광주 곳곳에서 전통놀이, 전시, 공연이 펼쳐져 온 가족이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2025 추석 한가위 한마당'이 열린다. 마당극 '춘향전', '별주부전' 공연과 함께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장구·북 등 국악기 체험, 소리피리(미니 나카) 만들기와 소원 키텁 제작 등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서는 10월 4일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려 고구려 벽화 속 7가지 전통놀이를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또 판소리와 산조 공연이 포함된 '토요상설공연'이 시민들의 흥을 더한다.

'예향 광주'답게 시립미술관과 광주비엔날레에서도 풍성한 전시가 마련된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려 '포용 디자인'을 주제로 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디자인비엔

날레 기념전', '허백련미술상 수상작가전'을 진행하고, 하정웅미술관에서는 청년작가 초대전 '이세현 : 푸른 낮, 붉은 밤'을 만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연휴 기간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10월 4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에서 목관악기 연주,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색소폰·합창 공연, 광산구 윤남근린공원에서 전통 줄타기 등 전통 연희를 즐길 수 있다. 10월 11일에는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난타 공연이,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국악 콘서트가 열린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10월 11일 오후 5시 윤상원 열사 탄생 7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무대에 오른다.

남구 교차움놀이테마공원에서는 남구 칠석마을에 전승되는 세시풍속놀이를 국가무형유산 제33호로 지정된 광주칠석교차움놀이를 볼 수 있는 '한가위에도 교차움놀이' 행사가 10월 3일 열린다.

북구 비엔날레광장에서는 10월 4일 '2025 비엔날레 문화콘서트'가 열려 불빛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광산구 가족센터는 9월 27



일 다문화 가정과 함께 송편 빚기,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는 '한가위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한가위 과학한마당'이 열린다. 과학 마술 쇼, 그림자 매직 쇼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같은 전통 명절 체험도 가능하고,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과학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2025 아시아문화주간'이 열리며, 아시아아트마켓과 전통의상 패션쇼가 진

행된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아시아 7개국 아티스트들의 공연 '경계를 넘어: 아시아 공연예술의 새 물결'과 ACC 창·제작 공연 등 우수 공연 4~5편이 AC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했다"며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은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더어마이광주' 누리집(<https://dmgj.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연극 꼭두아비> 공연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10월 16일(목) 오후 3시, 7시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연극 '꼭두아비'를 공연한다.

연극 '꼭두아비'는 호남의 전통화법인 '넛두리'를 통해 아버지들의 애환을 그려낸 시트콤 형식의 코미디극이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서, 각박한 시대를 살아낸 아버지의 진심과 가족 간의 소통이 절절하게 그려진다. 한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현실적 욕망인 '돈'과 인간의 본질적 가치인 '존엄성'을 되짚어보며 '가족'의 의미와 따뜻함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드라마 '용의 눈물', '정도전' 등 맹연기로 널리 알려진 선동혁 배우가 아버지 역과 연출을 동시에 맡았으며, 탁월한 연기력으로 방송과 무대를 넘나드는 이효주, 전은주 배우가 어머니 역, 그리고 장남, 차남, 딸, 며느리 등 다양한 등장인물이 극의 재미와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이며 풍성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영광군민-3,000원, 학생-1,000원/1인 4매 한정)



이며, 입장권은 오는 10월 1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군청 누리집([www.yeonggwang.go.kr](http://www.yeonggwang.go.kr)) 영광문화예술의전당 구역과 네이버밴드(<http://band.us/#/band/5015660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영광/이현식 기자

## 가을 낭만과 예술이 함께하는 강진군

군민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10월 문화예술행사 '풍성'

강진군은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군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채워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10월 집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강진군청 문예진흥팀 주관으로, 공연·전시·체험·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며, 세대별·계층별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10월 3일 개천절부터 추석 연휴, 10월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연속 운영되는 '강진영화관 영화보는날'이 진행된다. '영화보는날'은 강진군민 대상 전 회차 50% 할인 상영으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며 가을 연휴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어 11일 오후 3시 강진아트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극 뮤지컬 '피터팬' 공연이 펼쳐진다. 어린이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스토리와 생동감 넘치는 무대 연출로, 가을 주말을 문화예술로 물들일 예정이다.

17일 오후 6시 30분 무위사에서 열리는 수록대제 전야제에서는 창작뮤지컬 '세종의 꿈'이 무대에 올라, 전통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이 어우러진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 23일 오후 9시 강진아트홀에서는 서정극 '그대와 영원히'가 공연된다. 삶과 사랑, 이별과 기억을 주제로 한 이번 작품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서와 어우러져 군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진군 제1 실내체육관에서 제48회 전남민속예술축제가 개최된다. 전남 17개 시·군의 민속예술단이 참가해 지역의 고유한 전통예술을 겨루고 교류하는 이번 대회는, 강진군이 군 단위 최초 3번째 개최하는 만큼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뜻 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11월 1일 오후 6시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장에서는 유소년재능경연대회 본선이 개최된다. 이번 본선에는 7~9월 동안 3회에 걸쳐 진행된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12팀이 무대에 올라, 노래·댄스·연주·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각고 닦은 끼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예술은 지역의 활력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2025 나주영산강축제', 마당극 '나주삼색유산놀이' 선보인다

전통 민속놀이 창작 마당극으로 나주 역사, 문화 재조명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6시 '2025 나주영산강축제' 주무대에서 시립국악단 창작 마당극 '나주삼색유산놀이'를 선보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축제 현장에 흥겨움과 활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나주의 전통 민속놀이인 삼색유산놀이를 소재로 한 창작 마당극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나주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고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나주삼색유산놀이는 과거 나주 지역 산에서 음력 3월 보름 무렵 즐기던 대표 민속놀이로 화전놀이, 산놀이, 유산(遊山) 등으로 불렸다.

삼색(三色)은 양반, 상민, 천민을 상징하며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즐기던 나주 고유의 민속문화를 이번 공연에 녹여내 관객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시립국악단 관계자는 "나주 사람들의 삶과 흥을 바탕으로 한 창작 마당극으로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립국악단의 삼색

유산놀이는 나주의 전통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대표 작품"이라며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http://www.fbo.or.kr)